

“사랑해요 아시아”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 25일 문화전당 개관 무대 오른다

한·아세안 11개 국가
연주자 30명
각국 전통악기로 연주

국립아시아문화당을 가교로 아시아 전통음악 교류를 위해 결성된 ‘아시아 전통오케스트라’가 문화전당 개관무대에 오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은 “한국과 아세안 11개국 연주자 30명이 참여하는 ‘아시아 전통오케스트라’ 특별 공연이 오는 25일 문화전당 예술극장 무대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아시아...”는 2009년부터 진행된 문화전당의 아시아 국가 간 문화협력 사업을 위해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11개국이 보유한 30종의 아시아 전통악기로 편성된 연주단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회원국 10개국에서 각각 2명씩 선발된 해외 연주자 20명, 국내 연주자 10명, 합창단(광주시립합창단) 40명, 국악인 남상일, 김산옥씨 등 70여



명이 한 무대에 오른다.

최상화 중앙대학교 교수는 ‘진도아리랑’과 ‘남도의 무속구름(巫俗口音)’을 합창과 오케스트라 합주로 새롭게 구성한 ‘빛고을 아리랑’을 선보인다. 또 동남아시아 10개국을 대표하는 민요를 바탕으로 창작한 ‘원 아시아(ONE ASIA)’와 ‘사랑해요, 아시아’로 마지막을 장식한다.

특히 ‘사랑해요, 아시아’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가사를 11개국 각 나라의 언어로 표현해 노래하는 곡으로 아시아의 민속 선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곡이다.

아시아 전통오케스트라는 ‘20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 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2014년 인천아시아 게임’과 ‘2014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도 특별 공연을 선보여 호평받았다. ‘20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 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교육

23일엔 다문화가정 포함
일반인 200여명 초청
특별공연·악기체험 행사

대회’, ‘2011년 8·15 광복절’ 기념,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과 ‘2014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도 특별 공연을 선보여 갈채를 받은 바 있다.

“아시아 전통오케스트라”는 이번 문화전당 개관 기념 특별공연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워크숍을 진행한다.

문화전당 개관 기념 공연에 앞서 오는 23일에는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일반 시민 200여 명을 초청하여 ‘아시아 전통오케스트라 일반인 초청 특별 공연’을 선보인다.

빛고을시민문화관 대연실에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관객들이 연주자들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연주를 듣고 아세안 전통악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악기를 체험해볼 수 있다. 문의 062-601-4038.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멋과 흥이 넘치는 판소리 세상



19일 목요일연국악한마당
회옥예술단 초청 공연

광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이 진행하는 목요일연국악한마당 회옥 예술단을 초청, 공연을 갖는다. 19일 오후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회옥예술단(회장 기세규)은 회옥 이은하(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호 판소리 춘향가 예능보유자) 선생과 문하생들이 결성한 단체로 정기공연과 재능 기부 공연 등을 펼치고 있다.

“멋과 흥이 넘치는 판소리 세상”을 주제

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춘향가’와 ‘심청가’의 눈대목을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이은하씨가 제자들과 함께 ‘흥타령’과 ‘성주풀이’를 선사한다. 또 선영숙(전라남도 무형문화재 보유자)씨의 ‘김병호류 가야금산조’와 전남도립국악단장을 역임한 신상철(아쟁)씨를 중심으로 문성채(대금), 기세규(장구), 이양수(쟁)씨 등이 들려주는 정통 시나위 합주도 눈길을 끈다.

판소리 북 장단은 박지현(중요무형문화재 5호 판소리고법 이수자, 대통령상 수상)씨가 맡는다. 관람료 무료.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인문지행” - 삶과 죽음의 경계 그림으로 읽다

22일 광주극장 영화의 집

작품 ‘베아트릭체첸치’ 토론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기획을 마련하고 있는 인문학 모임 ‘인문지행’이 11월 행사를 갖는다. 22일 오후 2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

“삶과 죽음의 경계를 그림으로 읽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바로크 양식의 바르베르니 궁에 자리하고 있는 로마국립 회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기획에서 함께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눌 작품은 무고하게 처형당한 당시의 실존 인물을 다루고 있어 주목받는 귀도 레니의 ‘베아트릭체 첸치’, 바로크의 천재 화가 카라바조 작품으로 가장 개성 있게 ‘죽음’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한 명작으로 꼽히는 ‘유디트’ 등이다. 또 홀바인의 ‘헨리 8세’, 티치아노의 ‘비너스와 아도니스’ 등도 만날 수 있다.

심옥숙 박사(인문지행 대표)가 인문학



귀도 레니의 ‘베아트릭체 첸치’

적이고 통찰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미술교사 장근영(인문지행 회원)씨는 미술전공자의 시선으로 접근한다. 이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되며 클래식 기타 연주회도 열린다.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10-2656-9208, 010-5205-566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병태씨와 고래사냥’ 졸업식

광주문화재단이 50~6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화예술교육 ‘병태씨와 고래사냥’이 17일 졸업식을 갖고 마무리된다.

“병태씨와 고래사냥”은 은퇴를 했거나 앞둔 남성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지난 10월 17일부터 심리극, 1

박2일 여행, 음식 만들기 등을 진행했

다. 이날 오후 2시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졸업식은 참가자뿐 아니라 가족 등도 참여한 가운데 그동안의 과정을 기록한 영상 상영, 가수 박양희의 토크쇼, 음악 공연 등이 이어진다.

문의 062-670-576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커피방향제
인형 작품

광주여성재단 북카페 ‘은새암’ 생활 소품 만들기 참가자 모집

오늘 ‘나의 버킷 리스트’ 강좌도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이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재단이 운영하는 북카페 ‘은새암’은 지역 여성 작가와 여성소모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작은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배우는 프로그램은 ‘패브릭을 이용한 생활 소품 만들기’로 감승미씨가 지도한다. 강좌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열리며 신청 마감은 오는 18일까지다. 참가비 무료.

재단은 또 2015년 ‘여성주의와 인문학의 조우’ 11월 행사를 17일 오후 7시 재단 8층 강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강좌의 강사는 책 ‘철학하는 일상’의 저자 이경신씨다. 이 씨는 ‘나의 버킷 리스트-노년의 삶 설계’를 주제로 강연한다.

재단은 인간의 성 사랑, 결혼과 죽음을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성찰하고 우리 삶을 아름답게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알아보는 인문학 강좌를 열고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62-670-05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연광스님, 광주불교연합회 2대 회장 연임



광주불교연합회 제2대 회장에 연광스님(중심사 주지)이 연임됐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지난 13일 제3차 정기총회를 갖고 전제 회원사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연광스님을 제2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수석부회장은 보응스님(세심정사 주지), 명신스님(연화사 주지), 감사에는 원목스님(선덕사 주지), 보혜스님(비전사 주지)이 선출됐다.

연광스님은 “불교승가의 화합이 최고의 포교이다. 화합을 통해 광주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1년간 광주지역 활동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광주불교연합회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응스님과 2014·2015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준비를 한 봉축기획단장 시각스님이 감사패를 받았다. 또 봉사 부문에서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김정연), 광주불교산우회(회장 오정의), 조선대 박준희 교수, 최현기(전통등 전시회), 문금자 불자 등이 감사장을 받았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www.7ryang.com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 정윤석

강진칠량봉황옹기

우리고장의 자랑!!

칠량봉황옹기는 소박하지만 풍만한 선! 자연과 같은 따뜻한 색깔 간결하면서 세련된 옹기입니다

남도의 읍자락 강진에서 옹기배우는 정윤석씨(정명리(가) 부자)

A 2말 40kg 40L, B 1말 20kg 20L, C 1.5말 15kg 15L, D 3말 60kg 60L, E 2말 40kg 40L, F 1말 20kg 20L, G 0.5말 10kg 10L

강진칠량봉황옹기 주문문의 061-433-4943, 010-8836-2665

전남 강진군 칠량면 칠량옹기로179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파랑새 호텔 5회연속 선정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www.geumsoo.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